

광주시, 유기견 200마리 수용 ‘동물보호센터’ 개소

45억 투입… 북구 본촌동에 신축 지상 2층 규모… 연중무휴 직영 보호·진료실 등 최첨단시설 갖춰
강기정 시장 “반려동물도 한가족”

광주광역시가 유기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입양상담실 등을 갖춘 ‘동물보호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24일 강기정 시장과 장미선 동물보호센터장을 비롯해 김나운·임미란·채은지 광주시의원, 김광남 광주시수의사회장, 김동일 전남대 수의과대학 부학장, 노흥기 건국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본촌동에 신축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광주동물보호센터는 국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45억25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3307㎡(1000평), 건축면적 999.8㎡ 규모로 신축됐다.

유기견 2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 시설과 사무실, 미용·세탁실, 진료실, 수술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맞춘 현대적 시설을 갖췄다.

광주동물보호센터는 신축 동물보호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4일 북구 본촌동에서 ‘광주시 동물보호센터 개소식’을 갖고 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유기견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터(본촌마을길 25-1)와 기존 동물보호센터(본촌마을길 27)를 통합해 광주광역시가 직접 운영한다.

신축 센터 건물에는 유기견을, 기존 센터 건물에는 유기묘를 수용한다. 광주시

는 올해 노후화된 기존 센터의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일반직 공무원, 수의사, 훈련사 등 5명의 직원과 사육관리 용역 9명

등 총 14명이 유기·유실 동물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빠른 주인찾기와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이며, 입양 상담은 사전예약

제로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센터 시설 현대화로 유기동물의 복지수준을 한층 높이는 한편 시가 직접 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의 보호에서 입양까지 공공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였다. 환기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악취 문제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인식 개선 교육과 입양 홍보 SNS를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보호동물들이 새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시장은 “동물보호센터는 유기동물의 보호부터 입양까지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키워 동물복지·반려문화를 선도하고,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국동 주민 등 동물보호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반려동물도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29만 시민을 위해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서구·남구·북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정상이 기자 sangja.jeong@jinilbo.com

전남도, 28일부터 가축시장 순차 재개장

‘주의’ 사·군… 영암·무안 제외
‘심각’ 사·군은 내달 5일부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난 3월14일부터 가축시장 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농가 피해도 커지면서 전라남도가 오는 28일부터 지역별로 위험도에 따라 가축시장을 순차적으로 재개장한다.

이에 ‘주의’ 단계 7개 시군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가축시장은 28일 재개장한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과 ‘심각’ 단계 8개 시군(나주·화순·장흥·강진·해남·목포·함평·신안) 소는 가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

다.

5월5일부터는 ‘심각’ 단계 지역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할 계획이나,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무안의 소는 거래할 수 없다.

발생 시군인 영암·무안에 있는 가축시장 2곳은 발생지역에 위치해 있어 3km 방역대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재개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가축시장 재개장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가축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내외부를 추가

소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축시장 입구에 수의사를 배치해 임상검사와 주요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비치해 운영 종료 후 청소·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일까지 모든 가축시장 청소·세척·소독 조치를 했고, 재개장에 앞서 추가로 소독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주의단계 시군의 가축시장 개장 시 심각단계 시군 소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솔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설립 속도

미국 관계자 예정부지 방문
환경·입지 점검… 협력 논의

전라남도는 미국 레드랜즈 크리스천 스쿨(Redlands Christian School·RCS)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4일 까지 이틀간 전남을 방문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 현지에서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향후 구체적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

방문단은 토드 매트슨 RCS재단 이사장, 브라이언 벨 RCS 총괄교장, 다니엘

콜 RCS코리아 미국 대표, 다니엘 팩시디스 RCS코리아 한국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남 구성지구의 외국교육기관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기업도시 내 교육환경 및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김영록 지사와 면담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지사는 “솔라시도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기업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해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솔라시도에 외국교육기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아시아 5개국의 향 담았다”… ACC재단, ‘차 세트’ 출시

ACC 개관 10주년 기념 상품
한국 녹차·스리랑카 홍차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ACC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카페 ‘진정성’과 함께 개발한 아시아 차 세트를 선보인다. 아시아 5개국의 차 맛과 향이 담겼다.

24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지난 2015년 시작된 ACC와 카페 ‘진정성’의 동행을 기념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두 기관은 아시아 5개국의 차 수급에서부터 가공, 상품화 과정 전반을 함께해 차가 지닌 고유의 매력과 각 기관의 특성 및 브랜드가 지향하는 태도를 이번 상품에 담았다.

아시아의 차 세트는 5개국을 대표하는 차 티백 2개씩 총 10개로 구성했다. △한국의 세작 녹차 △스리랑카의 실론 홍차 △인도의 아쌈 홍차 △일본의 가부세차 △중국의 보이차 등이다. 특히 각국의 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카페 ‘진정성’과 함께 개발한 아시아 5개국의 차 세트를 선보인다. **ACC재단 제공**

료에 특화된 제다법을 적용해 다섯 가지 차의 개성과 매력을 살렸다. 따라서 뜨겁게 우려내거나 시원한 물이나 음료에 희석하는 등 기호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또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티

백을 사용해 상품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ACC재단과 ‘진정성’의 아시아 차 세트는 ACC 문화상품점 ‘들락(DLAC)’과 들락 누리집(<https://accdlacshop.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한강 작가 ‘빛과 실’ 베스트셀러 1위

노벨문학상 이후 첫 출간작
출간 첫날 알라딘 종합 1위

광주의 딸 한강 작가가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뒤 처음 출간한 책이 화제다. 24일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한강 작가의 책 ‘빛과 실(사진)’이 출간 첫날 알라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빛과 실’은 문학과지성사 산문 시리즈 ‘문지 에크리’의 아홉 번째 작품이다. 지난해 12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 전문 ‘빛과 실’과 수상 소감 ‘가장 어두운 밤에도’를 비롯해, 미발표 시와 산문, 작가가 자신의 온전한 최초의 집이라 부른 ‘북향 방’과 ‘정원’을 얻은 뒤 써낸 일기까지 총 열두 쪽지의 글이 사진들과 함께 담겼다.

‘빛과 실’의 첫날 판매량은 지난 2021년 출간된 ‘작별하지 않는다’의 3.7배, 2016년작 ‘흰’의 8.6배였으며, 부커상 수상 이전인 2014년 출간작 ‘소년이 온다’



전일 대비 5.8배, ‘작별하지 않는다’는 2배, ‘소년이 온다’는 1.7배의 판매량을 보였다.

또한 ‘빛과 실’이 포함된 ‘문지 에크리’ 시리즈의 다른 도서들 역시 지난해 총 판매량 대비 52.6배의 판매 상승을 기록했다.

알라딘 관계자는 “오전 11시 시작된 판매 오픈 전부터 일정을 묻는 문의가 쇄도했다. 출간 전 진행한 신간 알림 신청 이벤트에는 1만2000명의 독자가 신청하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보다 104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신간 출판과 함께 한강 작가의 이전 작품들 역시 판매량이 급증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는